

사설

불교학 결집대회에 바란다

시대와 유리된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설사 사회적 일탈을 일삼는 사이버 종교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시대대 반영한다. 16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의 경우, 많은 부분 한민족의 성쇠와 함께했으며 오늘날 까지도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고도성장기와 변혁기를 거치면서 '은둔'의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내년 5월 3~4일 동국대에서 열릴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첫째, 규모와 내용면에서 경전 성립의 시원을 이루는 초기불교의 '결집 전통', 한국 불교의 대표적 특성인 '통불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참여 학술단체가 30여개에 이르는데 한국불교학회나 인도철학회 같은 학술단체뿐 아니라 경전지식학회에 주력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진각종의 회당학회나 원광대학교까지 포괄하면서 초종교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내용상으로도 불교학뿐만 아니라

불교문학·불교사학·불교예술 등 관련 학문과의 연계도 시도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둘째, 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에도 적지않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 결집대회의 성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공개될 것인데, 이는 그 성과의 주인이 대중임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국가나 문화권에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 주제 선정이나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결집이라는 연구 공동체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소장 학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불교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불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규모의 방대함이 질적 우수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특정 학회의 테두리에 갇힌 폐쇄적 연구 태도나 우물안 개구리식의 학풍에 쇄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의의는 크다.

어려울 때 나누는 마음 갖자

불교복지시설의 후원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경기 약화의 결과가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한 알의 콩도 열 명이 나누어 먹었다는 우리네 전통 사회의 미덕을 되살리자. 그것이 곧 보살심의 발현이다.

불교사회복지재단인 승가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후원을 중단한 후원자가 한 달에 평균 369명인 데 비하여, 신규후원자는 한 달 평균 6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매월 300여 명의 후원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현실이다. 후원 중단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퇴사, 이민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해외근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국가의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장애복지시설인 소책새 마을이나 노인복지시설인 자광원 등은 당장 다가오는 겨울나기와 내년 살림살이 걱정으로 한숨을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래 들어 중단도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님들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수도 복지학 전공자가 늘어나고 있다. 종단차원에서든 사찰단위의 복지후원회의 조직 등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다.

이제는 '인간방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종단 정책으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주지스님들에게 표창하는 제도를 만들고 신도들에게 복지시설후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생명 존중, 즉 더불어 사는 인간애를 공적으로 삼도록 하였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 단체에서도 후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에 대한 자체점검과 반성을 통해 후원자 관리에 대한 각오를 다시해야 할 것이다.

자비보시는 불법 가운데 양(田)이라고 하였고, 육바라밀에서도 보시가 으뜸이라고 하였다. 네 가지 고통 중에서 병고를 먼저 들 듯이, 모든 불자가 심시일반하는 후원자가 된다면 부처님의 자비를 몸으로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될 것이요, 불우 이웃이 모두 부처님의 은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사회가 한층 밝아질 것이다.

불교 사이버상담시대 본격 개막

불교상담개발원 jabi24.org 28일 오픈

성격·대인관계·신행등 전문가 조언

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이 홈페이지를 구축,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이버 상담에 나선다. 또 전문면접 상담실을 개설, 심층적인 상담도 이뤄지게 됐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은 19일 포교원 3층 회의실에서 사이버 상담실 및 면접상담실 설명회를 갖고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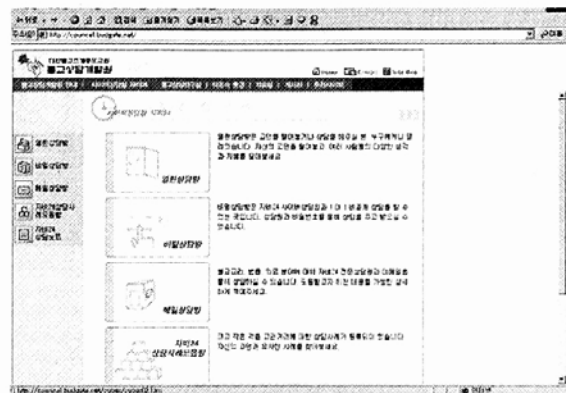
'자비24(jabi24.org)'로 도메인 명이 확정된 사이버상담실은 열린 상담방, 비밀상담방, 메일상담방, 자비24 상담사례모음방, 자비24 상담노트 등 다섯 가지 메뉴로 구성됐다.

특성별로 보면 열린상담방은 공개 게시판 상에서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자비24 사이버상담원뿐만 아니라 스님이나 일반 네티즌도 각자의 견해와 조언의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내담자와 상담자의 글은 모두 공개된다. 비밀상담방은 내담자와 사이버상담원의 1대1 상담이 비공개로 이뤄져 상담의 심도와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메일상담방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불교교리, 법률, 의료(정신과)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이뤄진다. 내담자가 분야를 선택해 상담요청 메일을 발송하면 자비24 전문상담원이 상담요청메일을 읽고 답변 메일을 작성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비24 상담사례모음방에서는 성격·정서, 교육·학업진로, 가정생활, 신·성·이성, 대인관계를 주제로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도움을 될 수 있는 상담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비24 상담노트는 상담진행상황을 메인화



◇불교상담개발원이 28일 오픈하는 사이버상담실 '자비24' 초기화면.

면에 소개해 생생한 상담현장을 네티즌들에게 보여준다.

이와는 별도로 불교상담개발원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문 면접상담실을 개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성격·적성·지능검사 등 심리검사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통된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http://counsel.budgate.net)에는 불교상담 칼럼을

비롯해 불교와 상담에 관한 논문과 서적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며, 각종 연구논문 및 상담원 교육강좌 등 자료실도 운영된다.

불교상담개발원 황선정 사무국장은 "사이버 상담은 인터넷이 보편화된 요즘 전화보다는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며, 메일상담의 경우 내담자의 질문에 상담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a.com

문화관광부장관 남궁진씨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에 남궁진(59세, 사천) 청와대 전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신임 남궁진 장관은 친화력이 있는 성격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지만 불교와 한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궁진 장관은 전북 익산출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 14, 15대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1999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김원우기자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

조계종 재능의키로

조계종 총무원은 19일 전통사찰 보존법개정안 검토 간담회를 갖고 현안이 되고 있는 '관람료 징수'에 대해 실효성을 파악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가한 총무원인 현웅스님과 범종스님은 "논란이 많아 토론이 필요하다" "관람료를 받을 경우 정부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 할 것이다" "관람료 징수는 사회에 거부감을 주고 불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후 논의와 관람료 징수 반대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문화재보호법 등 각 법을 비교한 뒤 실효성을 파악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법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와 협의해 불자의원들의 의견발의 형태로 국회에 상정,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김원우기자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조계종 10월20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제13회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일반신도 등 일반포교분야와 군, 경찰, 공무원, 교정교화, 장애인, 국제, 방송언론, 문화, 예술, 출판 등 특수포교분야 및 기타 분야 등 전 분야에서 가능하며, 10월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02)720-7060 한명우 기자



'부처님 일대기' 영어교재 1천부 배포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18일 포교원에서 '부처님 일대기'를 영역한 테이프와 책자 발간 고별식을 진행했다.

어린이 포교를 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부처님 일대기' 카세트테이프 및 교재는 테이프의 경우 영어로만 구성돼 있고 교재는 원문과 삽화 및 우리말 해설이 실려 있다.

또 학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30개 항목의 'Q&A'와 함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도 수록돼 있다.

국제포교사회는 어린이 범회 가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교재 1천여부를 무료 배포한다. 한명우 기자

북한산 관통로 대책위 발족

봉선사 스님 11명...위원장 각원스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조계종 제25교구 대책위원회'가 20일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발족했다.

11명의 봉선사 스님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위원장에 봉선사 부주지 각원스님(남양 인터뷰 4면), 부위원장에 무착스님, 실무위원에 봉선사 총무국장 선우, 기획국장 동산, 교무국장 여산스님 등 9인을 선출하고 100만인 서명운

동, 의정부시 외곽을 경유하는 대안노선 제시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 각원스님은 "다음주중 서울외곽고속 순환도로 불교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서명 및 시위 등을 펼치는 한편 의정부 외곽을 도는 대안노선을 마련해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천성산 천연보호구역 지정'

27개 사찰신도회 성명

통도사 본·말사의 27개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들은 최근 임로 개설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천성산 문제와 관련해 16일 성명을 내고, 천성산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천성산은 내원사와 미타암, 원효암 등 부처님 도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으로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생태계 보고"라며 "천성산 일대의 수환경과 자연환경이 보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습지복원과 보호를 위한 정밀조사 실시 및 구체적인 보존대책 수립 △천성산 출입금지 및 휴식전제 도입 △임로의 원상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경계 살리기 천일기도(千日祈禱) 회향(回向) 및 만등법회(萬燈法會)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부처님의 법(法)이 아무리 좋지만 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등(燈)이란 밝히는 것이 사명(使命)이요 책임(責任)입니다. 아득한 세월 업(業)에 절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심성(心性)에 부처님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자비의 광명이 아니면 도저히 씻어낼 수 없으며 철저히 감응한 생사의 거센 물결을 건너갈에 있어 지혜의 등불이 아니면 절대로 피안(彼岸)에 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밝혀 짙은 업을 참회하고 쌓여있는 더러운 업을 불살라 다음 생에는 보살의 육도(六道) 만행(萬行)을 뒤고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 하겠다는 홍원(弘願)을 한층 굳히기 위하여 우리 흥천사(興天寺)에서는 경계 살리기 및 가정 성불(成佛)을 위한 천일기도 회향 날에 만등(萬燈)불사(佛事)의 넓은 문을 열어 놓고 자타(自他) 모두 함께 성스러운 기도과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자아(自我) 진아(眞我)를 깨치고자 하는 이는 광명의 등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愛情)의 등을, 미워하는 이에게는 용서(容恕)의 등을, 소외(疎外)된 이에게는 관심(關心)의 등을,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快癒)의 등을, 조상 영가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불법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밝혀 청정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시고 가정마다 지극한 서원(誓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 ☐ 흥천사 만등법회
- 주 최 : 조령산 흥천사 신도일동
- 일 시 : 불기 2545년 10월 14일 (음력 8월 28일)
- 장 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조령산 흥천사
- 진 행 : 무형문화재 제 50호 법산 스님의 4명
- 1인1등 : 1만원
- 전 화 : 조령산 흥천사 043-833-6640, 833-5525
- 대 구 포교원 053-635-5932
- 스님 휴대폰 011-503-9737
- 계 좌 : 15008-51-001366 농협
- 예금주 : 흥천사(동봉)



문경새재 조령산 흥천사 조실 동봉(東奉) 합장